

# 보험료 인상 후 첫 장마... 車보험 손해율 가능할 '시험대'

손보사, 올해 누적 손해율 84%대 통상 적으로 80% 안팎 손익분기권 장마철 침수·사고 늘어 변수 작용 손해율 악화시 보험료조정 근거 활용

자동차보험료가 5년 만에 올랐지만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부담은 여전하다. 대형 손보사의 1~5월 누적 손해율이 이미 84%대에 머문 가운데 7월 장마와 집중호우가 보험료 인상 효과를 가능할 하반기 첫 변수로 떠올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단순 평균 84.7%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회사별로는 DB손보가 84.9%로 가장 높았고 KB손보 84.8%, 삼성화재 84.7%, 현대해상 84.2% 순이었다. 4개사 모두 84%대를 기록하면서 자동차보험 수익성



Chat GPT가 생성한 장마철 차량 침수 이미지.

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뜻한다. 업계에서는 통상 80% 안팎을 자동차보험 손익분기권으로 본다. 손해율이 손익분기권을 웃돌면 보험금 지급뿐 아니라 사업비 부담까지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악

화된다.

손보사들은 올해 2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대 인상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각각 1.4%, DB손보와 KB손보는 각각 1.3% 인상을 적용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5년 만이다.

문제는 인상 이후에도 누적 손해율이

뚜렷하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5월 한 달 손해율은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누계 기준으로는 여전히 84%대를 기록했다. 보험료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에 장마철 사고 변수가 먼저 다가온 셈이다.

자동차보험은 손보사 입장에서 대표적인 대중성 상품이다. 시장 경쟁과 당국의 가격 관리 영향이 큰 만큼 손해율이 악화해도 보험료 인상으로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 정비요금, 의료비, 임금 등 원가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계절성 재해까지 겹치면 손익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7월부터는 장마와 집중호우가 본격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여름철에는 차량 침수와 빗길 사고가 함께 늘어난다. 침수 사고는 수리비 부담이 크고 전손 처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 침수 피해는 7~8월에 집중됐다. 7~8월 침

수 피해액은 연평균 443억원으로 평년 203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고, 침수 피해 건수의 65%가 장마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사들은 당장 보험료 추가 인상을 언급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소비자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당국 협의와 사회적 여론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장마철 침수와 빗길 사고가 예년보다 크게 늘 경우 내년 보험료 조정 논의에서 손해율 악화가 주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됐지만 인상 폭이 제한적이어서 누적 손해율을 단기간에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침수와 빗길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장마철 손해율 흐름이 하반기 자동차보험 수익성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성북구 17억 국평에 '79점 청약통장' 등장

5인가족 만점점수 74점 보다 높아 동작국평 30억 단지에 68점 통장

서울에서 고분양가 논란에도 고가점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에서 '국민평형'의 분양가가 17억원을 웃돌았지만 5인가족 만점으로도 부족한 79점 통장이 등장했으며, 동작구의 국평 30억 원 단지에는 4인가족 만점 수준인 68점 통장이 나왔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장위뉴타운 10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 푸르지오 마크윈'의 당첨자 최고 가점은 79점이다. 전용 84㎡로 5인 가족 만점인 74점보다 높다.

단지는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상 35층, 23개동 총 1931세대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9~114㎡ 1032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이 넘을 경우 32점,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는 2명(3인 가구) 15점 ▲3인 20점 ▲4인 25점 ▲5인 30점 ▲6인(7인 가구) 이상 35점 등으로 점수가 더해진다. 4인 가족이라면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아도 가점이 최대 69점이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윈의 당첨자 평균 가점은 타입별로는 전용 46㎡가 67점으로 가장 높았다. 최고가 69점, 최저가 64점이었다.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46㎡ 8억8240만원 ▲59㎡ 14억6060만원 ▲84㎡ 17억6570만원 등이다. 지난 2022

년 말 청약을 진행한 장위뉴타운 4구역 '장위 자이아이 레디언트'의 분양가는 전용 84㎡가 10억2350만원이었다. 불과 4년 만에 분양가가 70% 안팎으로 뛰었다.

노량진뉴타운 2구역을 재개발한 '드와인 아르티아'의 경우 당첨자 최고 가점은 4인 가족 만점에 가까운 68점이다. 평균 가점으로는 전용 59㎡가 63점으로 가장 높았다.

단지는 동작구 노량진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상 45층, 2개동, 총 404세대 규모다.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59㎡ 22억6200만원 ▲84㎡ 27억6000만원에 달했다.

노량진뉴타운 분양가는 지난 4월 첫분양인 6구역 '리클라체자이드라인'이 국민평형 기준 25억8320만원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안성미 기자 smahn1@



김윤덕(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8일 전북KB금융타운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 자산운용 특화 '전북 KB금융타운' 개소

KB금융, 청년·중기·혁신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력·국가균형발전 기여

KB금융그룹은 8일 전북혁신도시에 '전북 KB금융타운'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NPS) 이사장, 조지훈 전주시장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전북KB금융타운은 국민연금공단(NPS)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과 중소기업,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 금융거점으로 조성됐다. KB금융은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양 회장은 "전북KB금융타운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의 출발점"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 혁신기업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KB금융타운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가 입주해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자산운용 업무를 지원하며, 금융 전문 인력과 혁신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금융거점으로 운영된다. 이번 개소를 통해 현지 채용인력 약 150여명을 포함한 약 350여명의 KB금융그룹 직원이 전북혁신도시에 상주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자산운용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와 KB증권 전주 CIB센터를 비롯해 지역 주민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증권 복합점포 ▲시니어 특화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KB골드라이프센터 ▲은행 채무조정 등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 ▲AI 기반 비대면 자산관리 상담센터 등을 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KB이노베이션 HUB'를 중심으로 계열사 협업과 투자 연계를 확대한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선순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의 강점인 기후·에너지·농생명 분야와 연계한 기후테크 벤처기업 육성 펀드에도 신규 투자한다. 이를 통해 탄소저감, 재생에너지, 스마트농업 등 유망 기업의 지역 내 창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과 컨설팅, 금융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안성미 기자 smahn1@

## "서리풀 1·2지구 주택착공 1년 앞당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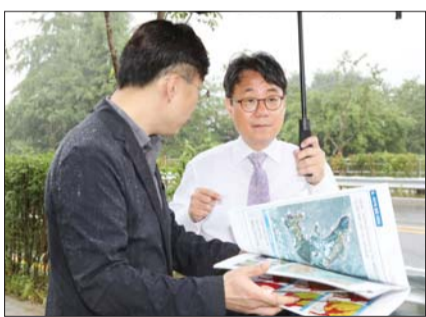
이성훈 LH사장, 현장점검 2028년 목표, 내년 상반기 승인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성훈 사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를 방문했다.

8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서리풀 1지구와 2지구를 차례로 찾아 현장을 점검했으며, 발표된 계획보다 주택착공 일정을 과감하게 1년 이상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서리풀 지구는 서울권 주택공급 확대의 상징적 사업이다. 1지구(1만8000호·2월 지정)와 2지구(2000호·6월 지정)를 합쳐 최대 2만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LH는 이달 1지구에 대한 지구 계획을 신청하고, 2028년 주택착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승인 및 하반기 보상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리풀 지구 주민들의 반대·준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며 보상·이주 등 현안을 지속적으로



8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현장에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오른쪽)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LH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LH는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와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신설 등 특화형 주택을 병행 공급해 서리풀 지구를 정부의 새로운 주거정책의 실행 모델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 사장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서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안성미 기자

## BNK금융 생산적·포용 금융 확대 부울경 도약 프로젝트

BNK금융이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의 발전이 곧 BNK의 성장이라는 기치 하에 기업과 서민을 아우르는 복합 금융지원을 적극 공급한다.

BNK금융그룹은 8일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울경 기업지원센터(가칭)' 및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부울경 경제 도약BNK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결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경제의 발전이 곧 BNK의 성장'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자체 정책과 연계한 금융지원 ▲지역 전략산업 협업 확대 ▲생산적금융·포용금융 과제 발굴 등 추진 목표를 선정했다. 지역 경쟁력 개선과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안승진 기자 asj1231@